

전남 3개항 2017년까지 재개발

목포항

수변공원·미술관 조성

광양항

골프장·해양생태공원

여수항

마리나 시설·워터파크

목포항에 녹지 공간을 갖춘 수변공원과 미술관이 조성되고 광양항에는 대형 골프장과 운동시설은 물론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이 들어선다. 또 여수항에는 마리나 시설, 워터파크가 세워진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전국 52개 항만 중 1960~1970년대에 건설돼 노후된 10개 재래부두를 오는 2017년까지 재개발하는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다음 달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다.

목포항 등 전남지역 3개항 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9천308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목포항= 해수면 만조시 바닷물 범람으로 저지대 건물 침수 우려를 안고 있는 목포항 내항은 광장과 녹지, 소형선 계류시설 등이 어우러진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또 쇼빙홀과 전시관매장, 벤처오피스, 미술관과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총

365억5천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광양항=모도 준설도 투기장 315만7천200㎡에는 대형 골프장과 운동시설,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이 들어선다. 공연장, 전시장과 해양환경 개선 연구단지, 해양생태공원과 유원지 등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오는 2015년까지 3천264억3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여수항=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유치와 관련, 2011년까지 화물처리 기능을 광양항으로 이전하게 될 여수항 신항 195만5천133㎡에는 관광유람선 집안시설과 마리나 시설, 테마파크, 테니스장 등이 건설된다. 또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벤처오피스 등도 다채롭게 들어선다.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가 개최될 경우, 해당 부지는 워터파크와 해양박물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5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추정사업비는 5천669억600만원이다. /홍행기자 redplane@



백중' 율놀이

백중인 27일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증평 마을에서는 700여명의 주민들이 율놀이 행사를 열고 주민 화합을 다졌다. 백중은 가을추수를 앞두고 농사의 지루함을 달래면서 더위로 쇠약해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전래 세시 풍속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어린이 수영교실 '복적'

강진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이 수영을 배우려는 초등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90명의 초등학생들을 모집, 1개월 과정의 어린이 수영교실을 개설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고흥군민 여러분

군정 제안하세요

11월30일까지 공모

고흥군이 군정 제안에 대한 혁신적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군민의 생활 편의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과 제도개선사항, 행정능률성 제고, 재정확충방안,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 참여마당 등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우수 제안자는 올 연말 시상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해피(happy)고흥 이동봉사대 운영 ▲주차장 유료화 ▲집중 근무시간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학생들이 지역내 고교로 대거 진학해 인구 유입을 막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외국어교육 특구지정과 축구 꿈나무 육성,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강진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강진 지역인재 육성 집중 투자

올해 36억원 지원...인구 유출 방지 성과

강진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강진군은 명문학교 육성에 10억 2천만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3억 원 ▲영어

타운 조성 4억 원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10억 원 ▲평생학습도시 지정 2억 원 등 올해 36억 원을 교육 인프라 구축에 지원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강진군의 이같은 교육투자는 관내 상위권 중

황토 고구마 명성 지키자

해남군 원산지 표시 단속

해남군이 해남 황토 고구마 명성을 지키기 위한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에 나섰다.

해남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출장소와 합동으로 인근 지역 주요 도로변 판매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강진과 영암, 진도, 완도군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변 일부 고구마 판매상들이 타지역 고구

마를 해남산으로 속이거나 섞어 팔아 해남 고구마 명성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은 본격적인 고구마 출하 시기를 맞아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리적 표시 등록, 고구마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관광객 늘자 꽃동산 조성·등산로 정비

완도 약산면 말빠른 대처 호응

완도군 약산면이 행정 수요 변화에 말빠르게 대처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약산면 산문산과 가사 해수욕장은 최근 약산 연도교에 이어 강진 마량을 잇는 연육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약산면은 연육교 개통에 앞서 산문산 등산로 8.8km 구간을 정비하고 주변 도로변 3개소에 꽃동산을 조성했다.

〈사진〉 말끔하게 단장된 주변 환경 덕분에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관광 약산'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공무원과 주민들의 합

심 노력으로 약산면은 지난 7월 완도군에서 실시한 행정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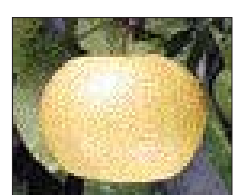
또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치에도 성공해 70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방도 830호선인 약산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조기착공되는 등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앞당기게 됐다.

박명규 약산면장은 "일이 발생 한 뒤에 대책을 수립해서는 행정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혁신적 사고를 가질 것을 전 공직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겉질째 먹는 배 나왔다

농진청 원예연구소 개발

겉질째 먹는 배가 나왔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겉질을 얇게 개량한 새로운 배(梨) 품종 '원교 나-40호(사진)'를 육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먹어도 거부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원예연구소는 다음달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과수육종 심포지엄 및 유전자원 전시회에서 이번에 육성된 배 품종은 일단 겉질 색깔이 기존 품종보다 밝은 황갈색으로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과

육의 단단한 알맹이인 '석세포'가 적고 과즙이 풍부해 얇은 겉질과 함께

여수시 여론 동향 모니터 요원 퇴직공무원 중심 위축 '빈축'

여수시가 퇴직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읍·면·동 모니터 요원을 위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퇴직공무원 등 지역 인사 30명을 다음달 초 '시정 여론·동향 모니터요원'로 위촉한다.

시는 이들을 27개 읍·면·동에 배치해 '지역현안 및 사회불안요인'을 모니터링,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시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에게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식사 등 간담회를 갖고 활동을 독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읍·면·동 등 공무원들의 정식 라인이 있는데도 굳이 별도 모니터 요원을 두고 지역 여론을 보고 받는 것은 '육상육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올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의 민감한 동향 보고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 사항을 다양한 각도에서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평생학습 축제 보러 목포 오세요"

10월 5~7일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다채

목포시가 오는 10월 5일부터 3일간 목포예술회관 일원에서 '제2회 평생 학습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알뜰 마당과 배움 마당, 참여 마당, 전시 마당으로 구분돼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알뜰 마당(아외행사장)에서는 목포 지역 기관(단체)홍보관 및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배움 마당에서는 세미나, 작가초청 강연회, 아카데미 강좌를 연다.

참여마당에서는 화승동아리 경연대회, 백일장 등이 펼쳐지고 전

시마당에서는 애니메이션, 비즈공예, 한지공예, 토끼어리과 같은 작품 전시회 및 동아리 활동 사례 전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목포시는 서남권 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초급 지도자 양성 과정, 관계자 연수, 협의회 등을 열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시정 비판 보도 막아라"

나주시 '기자 전담제' 논란

나주시가 '기자 전담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자 자구책으로 사무관 1명이 기자 1명을 직접 전담, 관리토록 했다.

'기자 전담제'는 시정 기획홍보실 이 주도해 각 실·과·소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친분있는 기자 1명을 전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인 관계에 의존해 시정에 불리한 기사 보도를 막으려는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 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A로 사무관은 "과거 민선시절의 1사 1담당관제가 재현된 듯한 느낌"이라며 "공무원과 기자간 친·불친을 할

용해 시정에 불리한 기사 게재를 막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전근 홍보담당은 "시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집중 보도돼 2개월 전부터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문제점이 노출 돼 시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시장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국장과 과장이 구속된 데 이어 예산서 조작 등 시정 문제점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깨끗한 농협 만들겠습니다"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 지정 결의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가 깨끗한 농협 구현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목포신안시군지부는 지난 23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목포신안시군지부는 올 상반기 신안관내 3개 학교에 청소년 권장도서 300여권을 기증했고 2명의 외국인 결혼이민자에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권과 체제비를 지원했다. 또 매년 관내 우수학생 1명을 선발, 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해외



문화 연수의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영배 지부장은 "농협인과 국민으로 부터 더욱 사랑받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직문화혁신과 윤리경영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범기자 wncho@